

아프리카계 이산민의 종교 관행¹⁾

박 구 병

기원과 발전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종교’라고 범주화할 수 있는 관행, 우주론, 제도의 다양한 면모는 아메리카에서 약 3세기 넘게 지속된 노예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530년대 말 태동한 설탕 플랜테이션의 원주민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아프리카인들이 브라질로 처음 유입되었을 때부터 1850년 노예무역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아메리카로 건너온 아프리카인은 1,100만 명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북아메리카로 유입된 아프리카인은 65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카리브 해 섬들로 유입된 수는 4백만 명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쿠바와 자메이카가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각각 70만 명이 족히 넘었을 것이다. 남아메리카에 유입된 이들은 약 50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360만 명의 행선지는 브라질이었다. 브라질의 바이아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게 유입되었다. 1820년대에 노예는 브라질 인구의 1/3을 차지했고, 자유민의 지위를 매입하거나 자유를 획득한 흑인들이 또 다른 1/3을 이루고 있었다. 쿠바에서는 1846년 무렵 노예와

1) 이 글은 다음 책을 요약한 것이다. Anna L. Peterson and Manuel A. Vásquez, eds, *Latin American Religions: Histories and Documents in Context*,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8, pp. 89–126, Jim Wafer, *The Taste of Blood: Spirit Possession in Brazilian Candomblé*,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1, pp. 16–20, 55–58, 그리고 David H. Brown, *Santería Enthroned: Art, Ritual, and Innovation in an Afro-Cuban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pp. 166–168.

자유 유색인들이 전체 인구의 약 53%를 차지했다.

노예 주인들은 아프리카계 인구가 언어, 출신 지역, 친지 관계를 중심으로 결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동질성을 약화시키고 여러 지역 출신을 한데 섞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계 이산민(diaspora)은 제한적이거나 같은 언어·종족 집단의 이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얼마간 정체성을 복원할 수 있었다. 예컨대 쿠바의 여러 곳에서 노예와 해방노예(자유민)은 카빌도(cabildo)라는 이름의 자발적인 상호부조 단체를 구성했다. 카빌도는 같은 지역 출신의 이주민들로 구성된 일종의 향우회였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1880년대 노예해방 당시 아바나에는 적어도 16개 주민 집단이 독자적인 카빌도를 구성하고 있었다. 식민 당국은 카빌도를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인식해 노예들에게 반란이 아닌 다른 행위를 통해 집단적 에너지를 표출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조직은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종교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했다.

가톨릭교회는 노예와 자유 유색인(아프리카인 및 아프리카계 혼혈인)의 삶에서 상호부조 단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이를 교리문답 과정의 효과적인 매개체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브라질의 식민지 교회 고위 성직자들은 이르만다지스(irmandades), 즉 노예들의 상태와 열망을 반영하는 수호성인의 장려와 판촉에 전념할 요량으로 평신도 조직의 창설을 독려했다. 이르만다지스가 확산되면서 ‘흑인 임금 노예’(negros de ganho)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겨났다. 이들은 병자를 돌보거나 수호성인을 위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과 자유를 지니고 있었다.

원주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예를 개종시키고 종교 생활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았다. 특히 노예들의 영적 행복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관심과 노예제라는 비인간적 제도에 대한 교회의 지지 사이의 모순은 매우 뚜렷했다. 가톨릭교회는 종교적 의무를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노예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노예 주인의 행위를 옹호하지 않았지만,

그런 면제권이 도망 노예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계 단체는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면서 도상(성상)과 예배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교회의 공식 조직과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하긴 했지만 브라질의 전통적인 대중 가톨릭 신앙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독립과 노예해방 이후 브라질 정부는 분리주의 운동의 잠재적인 배양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카빌도와 이르만다지스를 통제하고자 했다.

유입 노예의 약 40% 이상이 오늘날 앙골라와 콩고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중서부 출신이었다. 이렇게 유입된 노예들은 아메리카에서 바콩고(Bakongo), 즉 콩고인 집단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20%에 육박하는 노예들은 오늘날 가나의 동남부,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서남부를 포함하는 지역, 즉 베냉 만 지역 출신이었다. 특히 이 지역 출신의 노예들은 다호메이(Dahomey)의 의식과 신앙체계를 가져와 향후 아이티의 보두(Vodou) 신앙과²⁾ 쿠바의 대중 종교인 레글라 아라라(Regla Arará)의 토대가 되었다.³⁾ 또한 오요(Oyo), 에그바(Egba), 이제부(Ijebu) 등 다양한 종족이 아메리카로 유입되었다. 이들은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종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요루바(Yorubá)의 원천이었다.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다양한 종교로는 쿠바,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등에서 흔히 산테리아(Santería)로 부르는 레글라 루쿠미(Regla Lukumí), 브라질의 바이아와 리우데자네이루를 중심으로 확산된 칸동블레(Candomblé), 브라질 헤시피(Recife)의 상고(Xangô), 브라질 성루이스두마라냥의 탕보르 지 미나스(Tambor de

2) 흔히 부두교(Voodoo)라고 한다.

3) ‘아라라’는 쿠바(특히 아바나와 마탄사스 지방),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다른 카리브해 섬 지역에 정착한 소수 종족이다. 그 뿌리는 다호메이(현재의 베냉)의 폰(Fon), 에웨(Ewé), 포포(Popo), 마이(Mahi) 등 다양한 종족 집단에 두고 있다. ‘아라라’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같은 계열의 단어 라다(Rada: 아이티와 트리니다드)와 아라다(Arrada)—18세기 말부터 영국령 그레나다의 일부인 카리아코우(Carriacou)였다—는 다호메이의 도시인 알라다(Allada)에서 유래했다.



산테리아의 제단

Minas)⁴⁾,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의 바투키(Batuque)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 종교의 계보와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개략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아프리카 종교 사이, 그리고 가톨릭이나 원주민 종교와 이종교배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매우 영향력 있는 저술인 『검은 대서양』(The Black Atlantic, 1993)에서 폴 길로이(Paul Gilroy)는 다양한 아프리카 종족과 이산민 간의 교환과 혼종을 불연속적일뿐 아니라 종종 역설적이라고 기술했다. 변화와 혼종을 겪으면서도 아프리카적 요소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초창기부터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종교의 연구에서 핵심 쟁점이었다. 1950년대 말 인류학자 멜빌 허스코비츠(Melville Herskovits)는 ‘흑인은 과거가 없는 인간’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반박하고자 했다. 허스코비츠는 노예들이 차별적인 적응 과정을 겪었고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문화 변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4) ‘미나’는 서부 아프리카, 특히 베냉 만 지역에서 유입된 노예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며, 순수성과 혼종성 사이의 긴장을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종교의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했다.

앞서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칸동블레의 입회자인 로제 바스티드(Roget Bastide)는 향후 고전으로 손꼽히게 될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의 종교』(Les Religions Afro-Brésiliennes, 1960)에서 말레(Malê)⁵⁾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정령신앙과 물신숭배로 복귀함에 따라 브라질의 흑인 이슬람교도는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더욱이 바스티드는 브라질 역사에서 말레의 봉기가 남긴 강력한 유산을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 따르면, 플라니, 하우사, 만디고 등 대개 이슬람교도로 이루어진 주민 집단들은 킬롱부(quilombo)라고 부르는 대안적인 자급자족 공동체에 가담했다. 킬롱부는 1570년대 말부터 플랜테이션 경제에 저항해 탈주한 노예들의 공동체였다. 한 가지 두드러진 사례로는 1677년 농민, 장인, 전사로 구성된 아프리카인 30,000명이 중비(Zumbi)의 지도 아래 페르낭부쿠 내륙의 오지인 파우마리스(Palmares)에 세운 킬롱부를 들 수 있다. 팔마레스의 킬롱부는 헤시피의 부유한 대농장주들이 후원하는 무장 세력의 공세로 1695년 전멸할 때까지 존속했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바스티드의 저작은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가 브라질에서 역사적인 실체로 존재하면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세계관, 관습, 사회 조직의 방식

최근 들어 여러 학자들과 신자들은 혼종성에 대한 허스코비츠의 견해 뒤에 존재하는 동화주의적이고 본질주의적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5) 바이아 지방에서 이슬람교도를 일컫는 표현으로 요루바어의 이말레(imale)에서 유래했다고 추정된다. 또한 무솔미(Musulmi)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유색인 노예를 지칭한다.

들에 따르면, 가톨릭 성인은 아프리카인들이 비난과 책망을 피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뒤집어쓴 가면(假面)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면설’은 식민시대의 저항과 반란, 그리고 아프리카의 전통을 살려내려는 최근의 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 가지 견해 사이에서 일부 학자들은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종교가 지니는 비(非)이원론적 특성을 지적하면서 신자들이 이를 같은 신념의 두 가지 징후로 이해하곤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자들은 “두 가지 영적 실체가 모순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호보완적이기까지 하다”고 강조한다.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종교들의 엄청난 다양성과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요루바 계통의 아프리카 종교에 대한 비교 연구는 우리가 ‘계통적 유사성’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요루바 계통에 속하는 칸동블레, 웅반다(Umbanda), 산테리아는 물론 중요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오리샤를 비롯해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공공연한 혼합주의 때문에 웅반다는 브라질의 인종적·문화적 혼종성을 상징하는 ‘진정한 브라질의 종교’로 간주되기도 한다.

1920년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시작된 웅반다는 오늘날 상파울루 같은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우루과이의 몬데비데오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웅반다는 명백하게 가톨릭과 원주민 종교의 몇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19세기 중엽에 활동한 프랑스의 유명한 심령술사 알란 카르텍(Allan Kardec)의 영감을 받은 심령술의 요소를 통합시켰다. 그리하여 웅반다는 카르텍의 심령술처럼 카르마(業)와 환생(윤회)이라는 관념을 수용했고 신자들의 영혼이 더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돕고 교육하는 심령술사의 역할을 중요시했다.

웅반다의 신성한 존재인 오리샤(스페인어: orisha/oricha, 포르투갈어: orixá)는 아래 표에서 보듯 위대한 아프리카의 왕, 여왕, 전사의 영혼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통해 신의 권위를 지닌 두드러진 존재로 각인되고 더 높은 위계를 차지한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종교들에서는 대



의례 중 오리샤의 모습

개 물질세계와 영혼의 세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샤는 초월적인 천상의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육체적인 욕망을 지닌다. 오리샤는 ‘중간 매개체’나 그보다 좀 더 낮은 차원의 정령, 예컨대 카보클루(caboclo), 프레투 벨류(pretos velho), 에슈(exú)⁶⁾ 등과 같은 무대에서 활동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신자들이 위대한 영혼과 맺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관계는 오리샤 또는 성인이 육화하도록 그 신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브라운(David H. Brown)의 연구 「오리샤의 신성화: 간략한 개요」(2003)는 아프리카계 쿠바인들의 산테리아 신앙과 그 입회 예식을 소개하면서 오리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종교 집단의 진정

6) 카보클루의 사례로는 길들여지지 않은 원주민, 소몰이꾼, 선원, 그리고 다른 대중 영웅들의 영혼을 꿈울 수 있고, 프레투 벨류의 사례로는 유순하고 현명하며 나이든 아메리카 거주 노예들의 영혼을 들 수 있다. 한편 에슈는 오리샤의 전령으로 활동하는 노예들의 영혼이나 도시 빈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매춘부, 악당, 그 외 길거리의 인물 군상 등 관습을 거스르는 영혼을 포함하며 흔히 사탄(악마)이나 루시퍼, 지하 세계와 연결되기도 한다.

한 ‘주인’이자 ‘지배자’가 되는지를 설명한다.

[표 1] 웅반다의 우주관

I. 오리샤(orixá)

신성한 존재	가톨릭과 연관성	유대와 지배	피부색	제의 물품	음식
Olorum (Olodumare)	신(神), 성부 (聖父)	양성(兩性) 최 고 신, 우주의 창조자	백색	보이지 않지만 편 재(遍在)	
Oxal (Obatalá)	예수 그리스 도 성자(聖子)	하늘의 신·천 국	백색	양치기의 지팡이	참마 (Yam)
Iroko (Loko/Tempo)	성 프란시스 코 성령(聖靈)	시간, 날씨, 나 무	녹색	성스러운 잎사귀	
Xang	모세, 베드 로	정의·천둥과 번개, 비와 바 위 속에 거주	적색	쌍두(雙頭) 도끼	새 우와 오크라
Yemanj	영광의 성모 마리아, 성 령 잉태 마 리아	소금물, 바다 속에 거주	청색	은색 부채	물 고 기 와 쌀

II. ‘중간 매개체’

프레투 벨류(pretos velho), 카보클루(caboclo)

III. ‘낮은 (차원의) 영혼’

에슈(exú)

IV. 인간

V. 육체 없이 떠도는 영혼

에궁(egun, 사망자들의 방황하는 영혼으로 교화와 도움을 필요로 함)

다양한 원주민 문화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종교들은 흔히 기독교적 세계관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완고한 이원론이라기보다 균형과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자연계와 영혼의 세계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역동적이고 밀접하게 연관된 우주는 겸손, 존중, 상부상조의 기풍과 정신을 요구한다.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종교에서 우주의 구조는 생명력 또는 영적인 힘(aché/axé)의 역동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위계에 따라 구분되지만 밀착된 종교 집단에서⁷⁾ 신자들이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본 골격을 이룬다. 칸동블레의 성인 자녀(filhos de santo), 산테리아의 대자녀(代子女, ahijados/as)와 같은 입회자들이 신자가 될 때까지 성인의 아버지와 어머니(pai/mãe de santo) 또는 대부와 대모(padrinho/madrinha)로부터 받는 훈련은 단지 제의를 바르게 행하는 방식이나 겸손, 존중, 상부상조의 정신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그들이 생명력(aché/axé)의 다양한 형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인도자와 입회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유사하다.

칸동블레나 웅반다에는 가톨릭교회와 달리 교리의 정식화와 예배 관습의 규제를 관할하는 중앙 조직이 부재하다. 따라서 특정 테헤이루를 다른 테헤이루에 비해 전통에 더 충실하다든가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일부 칸동블레 지도자들이 웅반다가 구체할 길 없이 ‘백색’으로 변해버렸다고 비난하는 것 역시 그리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더욱이 ‘전통적’이라는 표현을 ‘오래 지속된 관습에 의존하다’는 의미로 사용할 경우, 혼합적 성격의 테헤이루가 아프리카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통을 복원하려는 경향의 테헤이루에 비해 더 전통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브라질 역사 속에서 종교 혼합주의는 아프리카의 전통을 복원하려는 운동에 선행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종교들의 순수성과 혼합주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단지 쿠바와 브라질 같이 아프리카계 인구가 많은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쿠바 망명객들은 두 번째 이산 과정을 통해 마이애미와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레글라 루쿠미, 즉 산테리아를 유입시켰다. 신흥 종교의 유입을 둘러싸고 전개된 마이애미의 갈등과 유사한

7) 칸동블레에서는 테헤이루(terreiro), 산테리아에서는 일레(ilé)라고 부른다.

사례들은 적지 않았다. 1980년대 초 마이애미에서 레글라 루쿠미의 의식은, 특히 동물 희생제와 관련해 심각한 긴장 상태를 유발시켰다. 당시 마이애미의 루쿠미 공동체(Church of the Lukumí Babalú-Ayé)⁸⁾ 그 지도자 오바 피차르도(Oba Ernesto Pichardo)는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하이얼리어(Hialeah) 시 당국이 “어떤 형태의 제의, 특히 공중도덕, 평화 또는 안전에 부합하지 않은 제의에 활용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불필요하고 잔인한 동물 살육 행위를 금지시켰을 때,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피차르도는 시 당국의 조례가 산테리아에 대한 광범위한 편견을 되풀이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199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물 희생제의를 산테리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규정하면서 원고 피차르도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를 통해 산테리아는 종족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박구병 —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8) 루쿠미는 산테리아의 다른 이름으로 요루바 어에서 유래했고, ‘바발루-아예’는 땅의 영을 높여 부르는 표현으로 ‘아버지 또는 땅의 주인’을 뜻한다.